

“딥페이크 피해 학생 치유·회복 위해 최선”

서거석 교육감 “재발 방지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 협력” 강조

서거석 교육감이 2일 딥페이크 등 불법 음란물 합성·유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돼 유감스럽다며, 무엇보다도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음란물 합성·유포는 학생들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사이버 범죄”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이번주를 사이버폭력 특별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정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온라인에서 의심스러운 영상이나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9월 직원조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올해 10대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은 직원조회에서 ‘전북교육,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퍼포먼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10대 핵심과제 추진에 만전”

서거석 교육감, 직원조회서... 학교 방역 선제대응도 강조

“10대 핵심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9월 직원조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6곳 선정, 전북자율형공립고 7개교 선정, 정읍·남원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등

을 언급하며 “교육부 공모사업은 제안서를 쓰는일부터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보람을 갖고 성취해 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2학기가 시작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면서 “학교 방역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

전북자치도교육청, 오재승 신임 대변인 임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임 대변인으로 오재승 전 전북도청 공보관을 임용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보좌기관인 대변인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날 1일자로 대변인임을 확대·개편하면서 개방형직위(4급 상당)로 오재승 신임 대변인을 임용했다. 한편 전라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오재승 대변인은 전라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한 후, 전주시청 홍보관리담당, 전북도청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오 대변인은 “전북민의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교육이 다시 우뚝 서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임 대변인으로 임용된 오재승 전 전북도청 공보관(사진 오른쪽).

성장해 나가는 데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 기능경기대회서 ‘두각’

금메달 4 · 은메달 5 · 동메달 4개 등 12개 직종서 총 25명 수상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최근 경북에서 열린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직업계고 선수단 75명(26개 직종)이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우수상 4개, 장려상 6개 등 12개 직종에서 총 25명이 수상했다. 2022년 4개교 5개 직종 6명, 2023년 6개교 7개 직종 10명의 선수가 금·은·동을 입상한 반면 이번 대회에서는 4개교 7개 직종 12명의 선수가 입상했다. 먼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5개 직종 14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카트로닉스, 프로토타입모델링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수상했다. 특히 프로토타입모델링의 이재학 선수는 지난해 은메달에 이어 올해 같은 직종에 재도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메카트로닉스에 출전한 2학년 소

준환·정성훈 학생은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전주공업고등학교는 3종목 9명의 선수가 출전해 자동차 정비, 전기기체, 자동차차체수리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자동차정비와 자동차차체수리는 3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게임과학교등학교는 3종목 9명의 선수가 출전해 게임개발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전국 257개 직업

계종 중에서 각각 10위와 11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론했다.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상금과 산업기사 실기 시험 면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됐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청소년의 바른 인성·올바른 가치관 형성 상호 협력

전북자치도교육청,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와 협약 체결... 청소년 문제 해결 위한 토론 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일 5층 회의실에서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회장 이희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도내 청소년의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해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인성육성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지원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인 회의와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협약의 이행을 통해 공동 목표 달성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이희경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5층 회의실에서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회장 이희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글로벌 리더십·브릿지 캠프 성과발표회

캠프 운영 성과 등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글로벌 리더십·브릿지 캠프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도내 고등학생 127명은 △캠프 운영 성과 △주제별 워크숍 결과 △체험학습과 연계된 명사 강의 △현직 학생들과의 소통 등을 통한 성장 과정을 공유했다. 글로벌 브릿지 캠프에 참여한 남원고 박대중 학생은 “지금까지 넓은 세

계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원광고 오현서 학생은 “미국에서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적 시야를 갖게 됐다”면서 “이번 캠프를 자양분으로 목표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전북 학생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미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전북자치도교육청, 13일까지 공직기강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4~13일까지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관행적 금품·향음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태도 △명절 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도 점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교육청은 9월 한 달간 부패 집진신고기간으로 운영중이다. 공직자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부패행위 신고) 또는 감사관실(063-239-0835)로 신고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3-6일 디지털 튜터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6일 4일간 디지털 튜터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정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2명, 2023년 23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던 디지털 튜터를 올해 2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교 정보 업무 지원 집합 연수 6시간, 디지털 기반 수업 지원 원격 연수 6시간 등 총 12시간 과정으로 운영

된다. 먼저, 3~4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이뤄지는 집합연수는 스마트기기 관리, 개인정보 관리 업무 지원, 정보 업무 관련 대장 작성법, 플랫폼별 계정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5~6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온라인 수업관리 서비스(LMS), 디지털 콘텐츠 활용 미술융합 교육, AI리터러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튜터 업무 지원 가이드도 보급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 과정 운영

전북대학교가 지역민 대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조직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집단의 상호작용과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지자체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RIS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가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는 퍼실리테이션 기법, 문제해결 방법 등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민 40여 명이 참여, 10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뤄진다. 앞서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8월 31일 오리엔테이션 열고 이번 과정에 대해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교우 RIS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해결하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2023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수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빅데이터 인재양성 교육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최근 공학 1관에서 ‘2024 CDS 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일 전주대에 따르면 교육부 지원으로 열린 CDS 빅데이터 교육에 재학생 20명 참가해 17명이 수료했다. 특히 이번 수료한 학생 중에 10명을 선발해 오는 10월 5일 전국 10개 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제5회 전국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 LINC 3.0 사업단 창의인력양성센터(센터장 강성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 창의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INC 3.0 사업단 김상진 단장은 “지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으로서 학생들이 미래 디지털 콘텐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역혁신(RISE)을 위한 미래 창의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